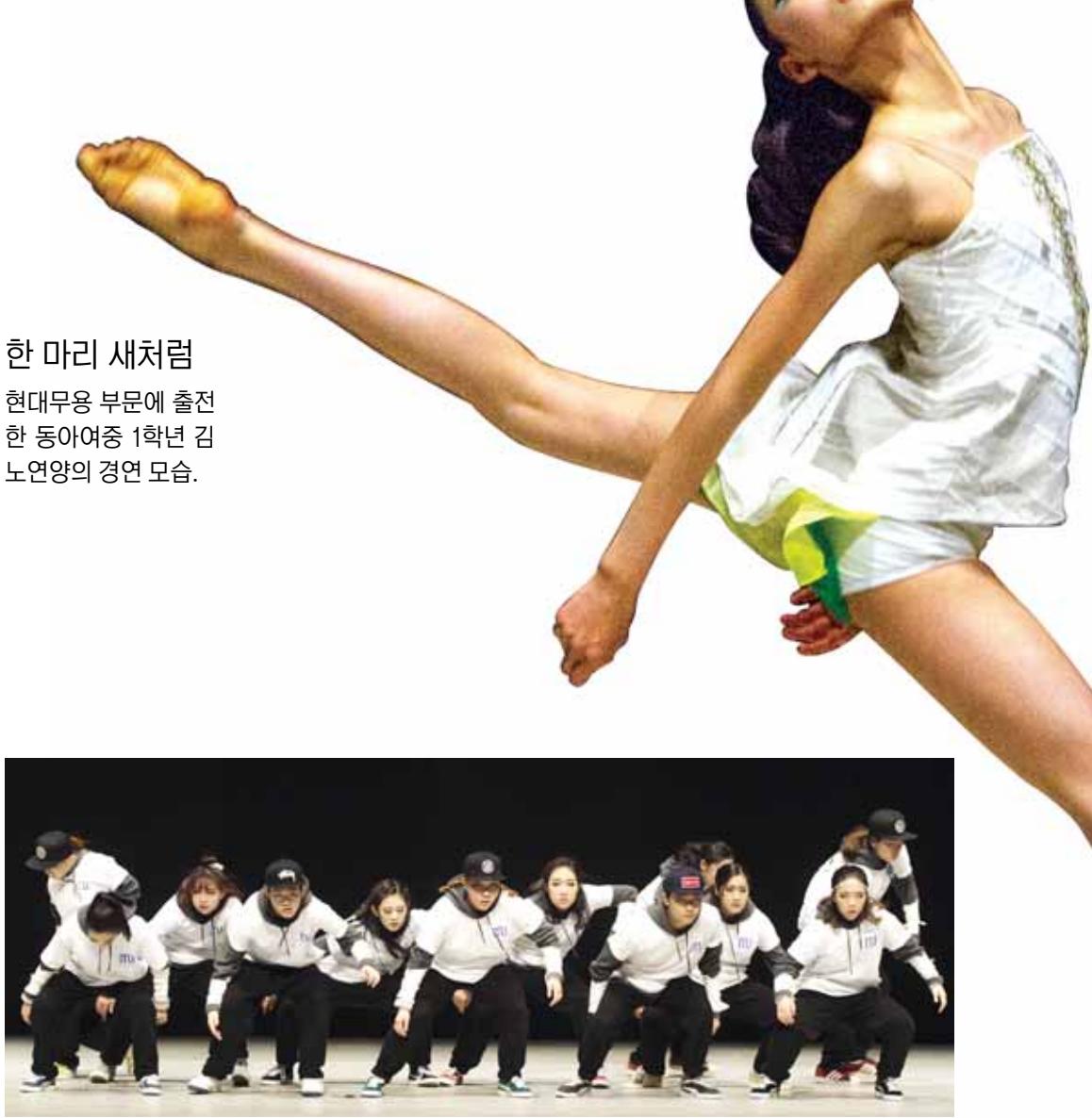




실력 뽐내는 병아리들 초등학교 성악 저학년 부문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동요를 부르며 실력을 뽐내고 있다. 왼쪽부터 양인영(백일초 2학년), 김민지(상무초 2), 백지효(삼육초 1), 지유찬(송원초 2), 홍유정(송원초 1), 강다솜(유안초 1), 김담은(설레시오초 1).

예술 꿈나무 맘껏 날아 올랐다



한 마리 새처럼

현대무용 부문에 출전
한 동아여중 1학년 김
노연양의 경연 모습.



힙합 전사 무빈업댄스스튜디오의 흥겨운 힙합 공연.

사진=최현배·김진수 기자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예술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가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호남예술제를 거쳐간 참가자들은 현재 예술가로, 교육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경연은 지난 4월 22일 광주 학생교육문화관에서 열린 무용 부문을 시작으로 국악, 음악, 합주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펼쳐졌다. 열띤 경연 현장을 화보에 담았다.



초등생들 흥 좀 보소 흥겨운 사물놀이 가락에 어깨가 절로 들썩인다. 타악 단체 부문에 참가한 고흥 두원초등학교 어린이들.



현악 선율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낸 화순 이양초등학교 현악 합주단.



붉은 너울 현대무용 부문에 참가한 광주수피아여고 3학년 문혜선 양이 작품 '단(丹)'을 선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월 **복경당**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 전·동신대교수

진료시간

평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 휴진, 공휴일은 오전 진료

진료문의 (062) 227-7575

KT ● 중앙초교
한화생명 ● 주차장 입구
구, 한미쇼핑 ● 고개 주차장
동부소방서 ● 복경당 청진원